



은혜·기쁨·치유·평안...



4월 22일
부터 3박4일
간 빅베어 파인크
레스트에서 열린 제7기
'주안에힐링캠프'에 170여명
의 Seekers와 Supporters가 참가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
(사진 양영 기자)

■ 제7기 주안에 힐링캠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
갓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만나룸
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찬양은 빅베어에 위치한 파인크레스트 산장을
3박4일 동안 구석구석 은혜의 비로 적셔 놓았다.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주안에교회가 진행한 제7기 주안에 힐링
캠프의 바로 그 감동여린 현장의 모습이다. 주제곡에 걸맞게 유난히도
눈물과 감동과 위로가 많았던 이번 캠프는 모두 68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으며, 그 중에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참가한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
었고, 하루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올라온 새신랑도 있었으며, 또한 부
부가 함께 나란히 참가해서 믿음 안에서 삶의 눈높이를 맞추어 가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익히며 훈련받는 아름다운 장면
을 연출한 경우도 있었다. <8면에 계속> | 오희경 기자 |

주 안에 4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InChrist Community Church

Apr. 2018 Vol.6 No.4

■ 고난주간 특새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사랑”

쌀쌀한 새벽 찬 바람을 가르고 주님의 교회를 찾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배신자들을 살리시려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감사하며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이 가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도 두려운 십자가의 형벌에 얼마나 번민을 하셨는지요! 피땀을 흘리시며 피하고 싶으셨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백성들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허망한 권세와 위선과 탐욕에 눈 먼 지도자들은 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당신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짐을 뺄고,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당신의 어깨에 지우고 골고다 언덕길로 끌고 갔습니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당신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며 피와 살을 토해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신 당신의 절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프셨는지요? 당신이 3년 동



안 함께 지내며 동고동락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제자들은 당신을 팔아넘기고, 당신을 버리고, 또 당신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장에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호산나’하며 당신을 환영하던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을 팔아넘기고, 당신을 버리고 부인했던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짐을 뺄고, 조롱하였습니다. 당신의 살을 도려낸 채찍은 바로 제 손에 들려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죄인이 어찌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

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살리시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려 죄 없는 당신의 피를 모두 쏟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 하늘보다 넓은 사랑을 어찌 제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다만,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당신의 사랑을, 저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 조근희 기자 |

■ 서포터즈 미팅

“내가 받은 섬김 그 사랑의 빛 같으며”

주안에교회의 뿌리이고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제 7기 힐링캠프를 앞두고 4월달 3번에 걸쳐 서포터즈 훈련이 MP체플에서 있었습니다. 벨리체플과 MP체플의 서포터즈 팔십여 명이 함께 모여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도 하였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서포터즈 참여 동기는 같았습니다. 힐링캠프의 시커로 참여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수 십년간 세상에서 묻은 시커먼 세상 때가 한꺼번에 벗겨진 캠프였습니다. 거친 세파에 찢어지고 굵고 부러진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의 섬김과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형클어지고 뒤죽박죽이던 신앙이 체계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때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영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때 말없이 섬기며 봉사하던 손길, 서포터들이 매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푸른 초장의 평화를 체험했고,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들의 손길로 거친 세파를 벗어나 회복의 가나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갠기 위해 세상 일을 뒤로하고 서포터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박 현동 목사님께서서는 전체적인 움직임과 순서, 그리고 각 그룹별 준비사항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모임에는 최 혁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모여 팀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준비사항, 팀별 준비물과 개인적인 준비물을 들고 점검을 하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힐링 캠프 시커로 참여했을 때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서포터들의 수고의 땀방울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포터로 캠프에 올라갑니다.

| 조성운 기자 |

■ 부활주일에배



ICY 중고등부, 코람데오 한아청년부가 바다위십 Sound of the Saints 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다.

“우리 삶의 관객,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만에 부활 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4월 첫주 채플별로 드렸습니다.

금년 부활절 예배는 예년과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밸리 채플에서 3개 채플 연합예배로 드리던 것을 금년에는 채플별로 1,2부 합동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평소 예배 때보다 2배 가까운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특히 MP채플은 새 성전 입당 후 첫번째 드리는 부활절 예배인지라 더욱 뜻 깊고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예배실 600석이 모두 차고 예비 의자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배는 채플별 성가대의 특별 찬양과 스킷, 중창, 세센 연주와 바다위십 등 순서가 진행 될수록 은혜가 더하여졌습니다.

최혁 담임 목사님의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3”으로 전해 주신 말씀 곧 하나님만이 내 삶에 유일한 관객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심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현실이 됨을 믿고 나아갈 때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셨습니다.

| 나형철 기자 |



〈사진 김진흥, 남성우, 양영, 조원용, 정인섭 기자〉

“축하합니다... 힘내세요...”



곽재은, 김혜민 성도 결혼(MP) 김경일 장로님과 김옥희 권사님의 막내딸인 청년부 소속 김혜민 양이 주안예교회 청년부를 함께 섬기고 있는 곽재은 군과 4월 21일에 서로가 돕는 베필이 되고 하나가 될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그 첫걸음을 떼는 결혼식을 올렸다. 아름다웠던 그 모습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가시기를 축복한다.

권영욱 집사 소천(벨리) 벨리채플을 섬기시던 권영욱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월 20일 장례예배를 은혜가운데서 마쳤다. 82세에 세상과 이별하신 권영욱 집사님께서, 목사님과 가족 그리고 목장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임종예배를 드린후 모두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평안하신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다고 한다. 유족으로 남겨진 권정숙 권사님과 따남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천국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시길 기도드린다.

이광영 안수집사, 임혜신 권사(MP) 임혜신 권사님의 부친이신 이성친 목사님께서 지난 15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니다. 이광영 집사님과 임혜신 권사님은 장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니다. 여러분의 위로에 감사합니다.



장남식 집사(MP) 그동안 바쁜 사업 스케줄 때문에 미뤄오던 힐링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스케줄 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내는 이번에는 제게 양보하고 다음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희용 안수집사, 고평하 권사(MP) 그동안 생업으로 인해 미뤄오던 힐링 캠프에 부부가 함께 시켜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힐링 캠프는 은퇴 후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줄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한 달 여 동부에 있는 딸네 집으로 휴가를 다녀옵니다.



조성운 안수집사, 조근희 권사(MP) 18 목장을 섬기는 조성운 집사님의 첫 외손자의 돌 잔치가 성대히 열렸었습니다. 목장 식구들만 조용히 부르셔서 다녀 왔는데, 친가 쪽에서는 첫 아들 손자(손녀는 많은데 손자는 처음입니다) 외가 쪽에서는 두 딸만 키우다가 아들 손자를 보아서 지난 일년 동안 양가에 큰 기쁨을 주던 손자 Aslen의

돌잔치는 4대의 잔치였습니다.

88세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정하신 모습으로 참석 하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매주 찾아가는 조성운 집사님 내외는 증손자, Aslen과 함께 찾아 갑니다. 매주 글렌데일까지 찾아 뵙고 식사 대접 하는 외조부를 어린 유아 때부터 보고 자라는 Aslen이 어떻게 자랄지 궁금 합니다.

조근희 권사님은 지난 달 88세의 아버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어머니는 손수 걸으시고 디즈니랜드에서 하루 종일 효도를 하셨습니다. 어땠느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한 번 가 볼 만해요. 너무 좋았어요.” 어린이처럼 밝게 웃으시는 86세 소녀 할머니의 웃음이 밝았습니다.

■ 숨은 일꾼/ 권금자 권사(벨리)



주안예교회의 벨리채플에는 우렁각시같은 권금자 권사님이 계신다.

특별히 맡으신 직분이 없는데도 시간이 날 때면 수시로 교회로 나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주방을 중심으로 미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도 하시고, 앞치마나 테이블커버 등을 빨아서 예쁘게 접어 놓기도 하시며, 꼼꼼하신 봉사국장님께 도움이 될만한 일들을 오솔처럼 처리해버리는 분이시다.

또한 매 주일 1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점심식사 이전에 떠나시는 성도분들이 시장기를 달랄 수 있도록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오랫동안 감당해오고 계시기도 한다.

목사님이신 아버님의 영향으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키워오신 권금자 권사님은, 70 가까운 인생의 여정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행하시길 힘쓰셨으며 당신의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교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신다.

평일 아무때나, 인적이 없는 교회 주방의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계시는 분과 마주한다면 그분이 바로 권금자 권사님이시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이제는 좀 편히 쉬실 때도 되셨건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게 휴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권금자 권사님! 지금의 그 평안하신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래토록 머물러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 오희경 기자 |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류인철 집사, 원성철 집사, 이천기 장로, 김응상 장로(MP) MP채플 탁구부 4분이 함께 힐링캠프 시켜로 다녀왔습니다. 캠프에서 받은 큰 은혜를 주안예교회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뛰며 나눌 것을 다짐했습니다.



양영 집사(밸리) 제7기 힐링캠프의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해 드론까지 띄우는 열성을 보이셨는데... 조종미숙인지, 기체 결함인지 드론이 나무가지에 걸려 불시착 상황까지 발생. 아무튼 밸리채플 사진국장으로 행사마다 동분서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경숙 권사(MP) 주안예교회의 탁구부 여왕이라고 자칭하는 MP채플의 박경숙권사가 지난 4월14일(토) LA 탁구협회가 주최하는 탁구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 학생부 예배후에 친구들과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고, 다시 탁구를 시작한지 10년 전부터 매주 체계적인 탁구교

습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탁구를 치면서 이미 지난 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두 번이나 했고, 이제는 여자선수 활동이 없는 관계로 남자부 경기에 참석해야 합니다.



항영옥 권사(밸리)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늘 넘쳐 후배들이 따라가기가 벅할 정도... 베벌리힐스에서 까페하시던 때의 실력을 힐링캠프 봉사에서도 발휘, 주방팀의 군기를 확실히 잡고, 커피와 음료 서비스에 한치 차질이 없도록 했다.

■ 교역자 소개/ 김피터 목사

Following God

My name is Peter Kim. I have served as a Youth/EM Pastor over the past seven years. I am ordained through the Evangelical Church Alliance (ECA). And now, I am faithfully serving as the Logos Pastor at InChrist Community Church.



Ever since I was young, I grew up in church. My mother was Christian so even from elementary school, I attended church every Sunday. At that age, I did not feel that I understood God very well. I went to church each Sunday. They played songs, I sang along, but I never felt as though I really understood what was happening. I just knew that when I was very scared at night - it helped to pray to God!

Gradually, as I got a little older, one summer I went to Africa on a mission trip, just before college. It was wonderful! For one month, I spent time just praying, reading the scriptures and working with orphans. It was a nice experience to get away from the regular world - filled with TV, materialism and just the overall busyness. At that time, I felt that God drew me much closer to him.

Upon finishing college, I began to pray earnestly to God about what I should do. I worked in a few different fields. I first worked in a law firm, then I worked in Optometry and once I even started my own small business. But as I kept praying to God about what I should do - one day, I felt that God asked me to give up my desire to have fame, to have worldly success and wealth and to follow him.

At first, I thought, "no!" But I realized in my heart, that I could only be satisfied if I surrendered to him. So after fighting with God - it felt like a long time, but it was probably no more than 30 minutes, on a car ride on the way to work one morning, I finally said "yes."

Soon after, I began attending seminary. God lead me to serve in my first church as an EM Pastor in Oakland. And it has not always been easy for me. But God has always been faithful. And I believe firmly that if you give your way to him, then your path will be secure.

■ 제7기 힐링캠프



작은 봉사 감당못할 은혜

저는 처음에 힐링캠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프레스 디아스에 다녀오기도 했고, 또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런데 가서 무슨 큰 변화나 은혜가 있겠는가 하는 일종의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권유를 해올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레스 디아스와는 완전히 다르고 신앙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과 함께 최 목사님의 거듭된 권유에 못이기는 척하고 조금은 늦은 5기에 시커스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시고 캠프에 올라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축복의 잔치였습니다. 가는 날부터 넘치도록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제 눈에는 눈물이 3박4일의 힐링캠프 내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제 인생의 길목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힐링캠프 내내 저를 도와주고 움직이는 길목마다 안내해주고 도와준 서포터들의 헌신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를 마치고 내려오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제 마음을 아시고 작년 가을의 6기에 이어 이번의 7기에도 서포터로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고, 올 10월에 한국에서 있게 될 힐링캠프에도 참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하는 말이 바로 힐링캠프의 서포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서포터로 작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는 부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커들을 대접하는 음식은 기도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상에 올립니다. 시커들의 마음을 풍성히 채울 영의 양식에 뒤지지 않을 만큼 육의 양식도 풍성해야 하니깐요. 아무쪼록 이번 7기 힐링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시커들과 서포터들이 영육 간에 풍성한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풍성하게 준비하고 올라갑니다. | 이순자 권사 |



〈힐링캠프 사진 양영, 정인섭 기자〉

■ 제7기 힐링캠프



"왜 이제 왔느냐" 그분의 음성이

제가 산장에 올라오기 전에는 종교가 단지 기독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으로 10대를 보냈고 환경을 원망하고 제 자신에게 채찍질 하면서 세상적으로 많은 걸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20대를 보내던 어느날 남편을 만나 제가 잊고 있던 하나님이란 단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단어는 저의 어린시절부터 너무나 붙들고 눈물로 울부짖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그냥 남편 따라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배우자에게는 있던 믿음과 신앙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세속적인 욕심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30대에 제가 알던 어린시절의 환경에 처해지면서 슬픔과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누구야? 그분 누구야? 진짜 누구시지? 알고 싶다. 느끼고 싶다.. 그래서 힐링캠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힐링캠프에 올라오기 전 그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는걸..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 달라고 광야가 아닌 기쁨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런 일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둘째 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제 모습을 보며 저의 자존감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내 육신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와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고 내 육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없이 20년을 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용서해 달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당신의 삶과 피를 마신 뒤에 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십자가와 면류관이 다시 보이게 되었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왜 이제 왔느냐 많이 기다렸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 밑으로 깊숙히 떨어지는데 그분이 잘 거둬주게 해주겠다, 날 용서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의 생일이 어찌 40년이라는 시간 중에 제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받고 있는 자녀 이고 축복 받은 당신의 딸 이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감정 이 마음 이 넓은 문.. 세상으로 내려가 넓은 문이라고 쉽게 열리지않은 그 문위에 있는 당신의 성령이 빠져 나가지않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문수인 집사 |



■ 제7기 힐링캠프

눈물 없는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자 주체못할 눈물이...

저는 문수경 집사님이 20살때부터 알아왔던 오빠동생 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문집사님이 최혁 목사님의 말씀CD를 전달해주며 껴욱 들어보시라고.. 저는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말씀CD 중 하나로 생각하고 한 구석에 놓았다가 어느날 잠이 안와서 CD나 들어보자.. 그럼 잠이 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틀어놓은 말씀씨가 최혁목사님 씨디였습니다. 저는 CD 플레이어 앞에 앉아서 듣는 말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와우... 누구지? 말씀이 넘 파워풀하다.. 직접 들어보고싶다 라는 생각에 매주 목요일 엘에이에서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주 목요일 예배에 말씀들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몬트레이파크로 옮기시면서 저도 일이 바빠지다보니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수경 집사님이 이번에 힐링캠프 신청해 놓았으니 꼭 가져야 된다는 말에 놀라 '일해야 되는데 안돼' 라는 말을 하고 제 마음 속에선 집사람도 데리고 함께 가야지 하



며 회사엔 나를 찾지 말리는 통보를 하고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가서 말씀 안에 푸욱 빠지다가 오자며 준비하는 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날 만사를 통하여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양이 눈이 너무 나빠서 앞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앞뒤 구분도 못하고.. 자기 먹을 것 조차 찾아먹을 수도 없는 무능한 양이고 씻어 놓으면 또 굴러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몸으로 서로 뒤엉키고... 꼭 저의 모습을 듣는 것 같이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자신.. 자기 가족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양들은 곧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에게 목자의 음성만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매번 만나 시간마다 저의 머리를 열음 방향으로 맞는듯이 정신이 번쩍들며 제 영혼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은 나는지... 제가 원래 잘 안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제게 감사와 기쁨 그리고 용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질그릇같은, 꺼져가는 심지불밖에 안되는 저에게 허락하신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음 또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다시 베풀 그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예수이름 전하며 살겠습니다!! | 김지운 집사 |



<1면서 계속> 평상시 교회에서 듣는 말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신 분들의 호기심, 그리고 각자 다른 모양으로 찾아드는 세상적인 고통과 절망으로부터의 회복... 모두가 참여동기와 목적은 달랐지만,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의 말씀과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의 흐느낌이 늘어갔고, 캠프 마지막 날에는 주어진 시간보다 더욱 많은 간증들이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아울러서 70명을 웃도는 봉사자들 또한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의 눈물과 그 단맛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삶을 위한 도전을 다시한번 다짐하며, 더욱 성숙한 모습의 섬김을 기쁨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제 7기 주안에 힐링캠프를 통하여서 우연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신을 향한 계획이 이곳에도 있었음을 확인하셨기를 바라며, 그 받은 은혜를 잘 받았다고 시인하며, 아낌없이 나누고, 내려놓아야 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담대함으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채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 열망이

20년전 한 선배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후 뜨거운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문제로 이곳 엘에어로 올라온 뒤 저는 일과 신앙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박이안 집사(MP)

수많은 유명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교회를 옮긴다는데 거부감이 있었던 나에게 한동안 주일을 샌디에이고로 출석하는 신앙 생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교회를 전전하며 느꼈던 것은 교회에 성도들과 목사님은 많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이젠 정말 조용한 교회를 찾아야겠다 다짐하며, 몇 년 전부터 정말 그런 교회를 찾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이 다시 찾아왔고,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며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 분의 차에서 흘러나오는 최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보다 근원적인 내 신앙, 곧 내 삶에서 간과했던 말씀들이 명확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고민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들려오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간결하고 분명히 새겨질 때, '아 그거였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이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주일예배, 최혁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명확하며, 군더더기가 없어 나의 뇌리와 영혼에 구석구석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어두웠던 방들에 하나 하나 불이 들어오며 밝아지듯이 마음과 정신이 밝아지며, 바뀐 게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하면 얻으리라'며 복을 구하던 기존의 신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옮겨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목적인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가' 하는 물음을 먼저 하는 자신에게서 좀 더 조심스러운 신앙을 살고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처럼 저도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감이 넘쳐 보여 참 좋습니다. 그건 아마도 신앙의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명확히 알고 믿는 하나님의 대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마주할 때 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오랜동안 뒤어서 쓴맛은 사라지고 구수함을 더한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창밖을 바라보니 비바람이 오고 난 후 매마른 땅이 생기를 찾아 꽃을 피우는 그 때 우리 가족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 심으신 주님을 목상해 봅니다.



최옥희 집사(벨리)

그동안 섬기던 교회가 개척을 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친구없이 홀로 지내는 아들이 안쓰러워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컸는데 막상 교회를 옮기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히 저희의 모든 염려와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아 오늘 예배 어땠어?" 물었을 때 아들은 대답 대신 두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나 이제 이 교회에 다닐거야. 전에 다니던 교회에는 더 이상 안 갈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 친구들도 너무 좋고 전도사님도 너무 좋다고 말을 해서 한편 안심되고 한편 그동안 아이 혼자 예배 드리게 한것에 대한 부모로서 미안함으로 가슴이 먹먹해 졌습니다. 아이의 대답이 진실이라는 걸 김유진 전도사님을 만나보고 알 수 있었는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의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예배당을 찾았을 때 서툰 저희 발걸음을 기다려주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섬겨주시던 새가족부 부원들... 환한 미소를 띄고 낮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모습에서 또 예배후 새가족실에서 정갈한 음식으로 대접하시던 그 손길과 장로님의 최혁 목사님을 향한 신뢰와 애정을 간증하시며 주안의교회에 잘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매주 새가족의 뿌리 내리기를 도우시려고 큰소리를 내지 않고도 마음을 읽어주는 권사님의 친절함 전하심방을 받으며 교회를 향한 저 뜨거운 사랑의 근원은 매주 가득 가득 채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일하는 교회구나를 알게 하였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에 대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주간 목상하면서 제 삶에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새로운 물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실려고 예비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한 내 심령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은혜를 받고 또 목장 모임으로 서로의 신앙을 활발히 토론하며 진리를 탐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내눈에도 이리 이쁘게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안에교회를 통하여 저희가족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가기를 기도합니다.

■ 교우비지니스 안내

SEONG UN JOE
VIJA TRAFFIC SCHOOL 비자운전학교
213-739-8181
vijasj@gmail.com
4157 W. 5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정원 공사
나 형 철 Cell: 213.999.2967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Master Car Auto Body Shop
Danny Lee (이원근)
5801 S. Central Ave #H
Los Angeles, CA 90011
wonkni@gmail.com
(213) 703 - 0777
보험수리, 리스리턴,
렌트카, 토잉 서비스

■ 선교 후기

선교는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나누는 일이다. 선교는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일이다. 선교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선교는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더 기쁜 것이다. 그 선교는 표정과 태도로 먼저 시작 된다.

선교지에서 만난 봉사자들은 다양했다. 서울에서 온 주부는 고등학생들에게 베드민턴을 가르치고 있었다. 르완다의 키가리 사람들은 이 운동을 모른다. 그 코치는 아이들에게 베드민턴을 가르치기 위해 서울에서 운동화를 모아 왔다. 아는 사람들의 신발을 모아서, 신던 것은 깨끗이 빨아 가지고 왔다. 오전 수업을 끝내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기 위해 점심을 먹어야 했고, 운동화를 신겨야 했다 그녀는 그렇게 준비를 했다. 라켓에 줄을 끼우는 것부터 가르치고, 이론을 가르치고, 운동장에서 뭘 때는 마을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고,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던 선교사님은 다음 올림픽 때 르완다의 베드민턴 대표 선수라고 기뻐 흥분하였다.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힐링을 받고 있는 것을 감지한 코치는 아이들 하나 하나를 사랑 하는 마음으로 시합을 열었고, 이긴 아이들한



나눔의 기쁨

<이에스더 기자>

테 장학금을 상급으로 걸고 시험하게 했다. 아이들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해 했던 코치는 그 아이들 사랑에 흠뻑 젖어서 아프리카를 떠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그 제자들에게 가 있었다.

우리 일행이 탄자니아 부코바에 찾아 갔었을 때 베드민턴 코치는 부코바 청년들에게 배구를 가르쳤다. 놀이가 없는 그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사역이다. 한 청년은 운동화가 없었다. 그 다음날 시험을 하기로 했는데도 운동화를 구할 수가 없었던 청년을 지금까지 연습했는데 운동화가 없다고 뺄 수가 없지 않은가? 한국에서 온 청년 전도사님이 자기 운동화를 깨끗이 닦아서 갖고 가서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주었더니 소리 없이 기뻐하던 아프리카 청년. 그 신을 지금도 얼마나 귀하게 다루고 있을까 상상해 본다.

부코바의 유치원 자리는 2년 전에 지진으로 유리창은 깨어지고, 교실 바닥은 갈라지고 벽은 부숴져 있었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유치원 개원을 코 앞에 두고 있었다. 건축 기술이 뒤떨어져 예정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시멘트와 페인트가 들어 가 예산을 훨씬 초과했지만 건물만 덩그러니 있었고, 아무 놀이 시설이 없는 곳에 유치원을 개원해야 했던 선교사님은 벽화를 그려 주기를 원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청년 여자는 미대를 졸업했고 개척 교회를 섬기던 부모님을 도와 주일 학교 선생님을 오래 동안 해 왔고, 직업을 통해 많은 이벤트들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많은 벽들에 벽화를 그렸고 우리 일행은 페인트로 색칠을 하기 시작했다.

황량한 빌딩이 갑자기 아름다운 초원으로, 예수님의 현현으로, 아이들의 키득대는 웃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 했다. 풍성한 생명의 향연이 벽을 타고 유치원 빌딩 안으로 가득 찼다. 푸른 나무들, 세령게티는 아니지만 목이 긴 기린. 지치도록 힘들었던 젊은이들은 그 생명으로 기뻐하며 피곤을 등에 지고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 가족 여행

아이들이 봄방학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처음으로 4박5일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했다.

어디를갈까 생각하다가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칸쿤으로 결정,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하는데 호텔은 날짜와 가격이 맞지 않아 아이들 추천으로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airbnb를 지도로 확인하고 칸쿤근처로 예약을 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행 계획을 부탁하고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마음은 벌써 설레이며 여행이 주는 매력에 빠져 버렸다.

주위 분들에게 칸쿤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한결같이 칸쿤이 위험하다며 호텔밖으로는 나가지 말라는 권면을 들으면서 설마하는 생각과 함께 반신반의 했다. 옆친데 댁친다고 여행을 떠나기 몇 일전, 칸쿤에서 온 가족 네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위험한가??' 라는 약간의 염려가 생겼지만 이미 여행준비가 완료된 상태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칸쿤에서 생긴 일 <박경숙 기자>



온 가족이 처음으로 계획한 해외여행인데 모두가 칸쿤여행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행취소도 불가능하오니 전능하신 엘사다이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여행을 보호하사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도 계속해서 예수이름으로 기도했다. 새벽 12시에 출발한 비행기는 아직 아침을 열기전인 칸쿤시간으로 새벽 6시쯤 도착, 낯설은 여행지에서 맞이하는 새벽기운은 더 싸늘한게 마침 미리예약해 두었던 택시기사와의 만남이 얼마나 '방가방가' 였던지..ㅎㅎ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은 아직 한적한 게 택시밖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건물들은 마치 폐허가 되어 방치되어 있는 게 심상치 않았고, 지금 가고있는 길이 칸쿤 반대 길이라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숙소가 있는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어리둥절한 마음에 이른 아침이라는 것도 잊은채 모든 식당과 가게들이 닫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 앞에서 불안한 마음은 나를 엄습했다.

4박5일동안 묵어야하는 숙소는 앞에 건물을 하나 사이로 바닷가가 보였지만 우리가 가고 싶었던 칸쿤하고는 25분이라는 거리 차이로 우리 가족은 덴봉에 빠졌다. 숙소문제에 봉착한 우리는 숙소를 포기하고 칸쿤 시내 호텔로 옮겨야할지 의문을 하다가 숙소 매니저를 만나 주변안전과 칸쿤 시내에 머물 필요가 없음을 듣고 일단은 안심하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해 주심에 감사했다. <다음 호에 계속>

스폰지처럼 품어준
그 사랑 아련한 추억

사랑하는 나의 엄마에게, 생전에 엄마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았는데 엄마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지도 어느덧 5년이 되어 오네요. 엄마가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

던 그 사랑을 생각하노라면 보답할 기회도 안주시고 떠나신 것이 너무나 아쉽고 불효인 저를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언제나 부족한 저를 스폰지처럼 품어주셨던 엄마! 엄마는 구름이나 바람처럼 늘 제 곁에 계시질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서둘러 가시더군요.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줄 몰랐던 저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감사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애뜻해지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곤 해요. 엄마가 안계신 나를 상상할수가 없었는데 하루하루가 책속의 한 페이지처럼 지나가고 있네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고요하고 깊은 슬픔, 도무지 가지지 않는 묵직한 여운, 아련히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들로 심장이 딱딱하고 아픈 느낌을 무어라 표현할수 있겠어요... 엄마를 그리노라면 먼 들녘에서 불어오는 한줄의 비바람에도 괜스리 눈시울이 붉어지며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 홀로 앉아 있는 것처럼 뜻 모를 외로움에 사무치곤해요. 엄마와 같이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모두 어디로 숨어버린 것인가? 엄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봄 햇살의 찬란한 넉넉함 이라고 할까? 행복의 꿈물이 넘쳐 흐름을 느껴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할 때는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뀌없이 흘러가는 삶에도 엄마가 머리에 떠오르면, 멈추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엄마를 향한 그리움되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온 하네요.

부를 때마다 내 가슴에 별이되는 엄마! 내안에 들어와서 나의 메마름, 애달픔 들을 적셔주시고 파도처럼 출렁이는 내 마음의 푸른언어들 들어주실 것이라고 상상하곤 해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이 모였다가 어느날 한편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요. 색유리처럼 아름다운 기도 속에서 엄마와의 대화가 차곡차곡 쌓이며 저도 언젠가는 엄마를 다시 반갑게 만날 날을 절감하면서 더욱 충실히 순간순간속에 영원을 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 김헬렌A 권사(밸리) |

내 가슴에 따뜻함을
데워주는 그 사랑

얼마전 이사온 이곳은 밸리에서 한시간 남짓 벗어난 곳으로 자연을 조금더 가까이서 접하고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곳이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은 때아닌 4월에 눈구경을 실컷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비 오기 전 산하리를 내려오는 구름은 오심중반인 나에게 다시한번 소녀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곤 한다.

30-40대 때에, 화분만 사다놓으면 얼마 못가 죽어버리는 꽃들을 보며, 공기 끝에 생화 대신에 조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야했던 내가, 근래에 Home Depot 만 가면 자연스레 Garden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고 또다시 우리집 거실에는 꽃화분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향이 좋아 학창시절 치자꽃잎을 뜯어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나서 치자꽃 화



분 하나를 사다놓고 물을 주며 혼자 꽃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을 어느날 보면서 문득 친정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꽃을 너무도 좋아해서 길거리에 버려진 화분도 들고 오셔서 어느새 예쁜 꽃이 피어나게 만드셨던 엄마... 또 친구들이 올 때면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들의 대화에 유머와 재치로 살짝 끼어드시다 어느사이 당신도, 깔깔거리는 우리와 함께 웃고 계시던 엄마가, 꽃과 함께 그리움으로 피어난다. 늘 고운 자태로, 단 한번도 큰소리내어 나무라신 적이 없으시던 엄마! 10년 넘게 미국에서 함께 사실 때에도 Shopping 이나 Market 을 갈 때면, 생각하는 것, 보는 것이 너무도 똑같아서 얘기하다말고 마주보며 서로 웃던 그 모습이 너무 생각난다.

한국에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지금은 미국에 있는 날 기억조차 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함께 했던 많은 추억이,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웃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오늘도 사라져가는 기억속에서 오남매를 향한 사랑의 기도를 놓지 않으시며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주어 상대를 기분 좋게 하시는 엄마...

| 문효선 권사(밸리) |

■ 나의 어머니(마더스데이 테마 에세이)

언니같이 친구같이
평생 격려와 의지

우리 어머니는 인텔리 여성입니다. 그 옛날에 서울대 사대를 졸업하셨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겸비하신 지성과 미모를 당신의 삶 가운데 늘

채우고 사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결혼을 하여 우리 다섯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과는 조금은 다르십니다. 다른 어머니들이 결혼과 함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누구의 아내와 누구의 어머니로 사셨다면, 우리 어머니는 결혼 생활 중에도 자신의 이상과 개성을 내세우시고 키우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장녀인 저에게 어머니는 언니 같은 분입니다.

저희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직접적인 따뜻함 대신 간접적인,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풍부하고 애정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조금은 부유했던 가정이었기에 가정부들이 식사를 준비하였지만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넘쳤습니다. 큰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고 이렇게 준비해라, 둘째는 이것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준비해라 하시며 식사 준비 때마다 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디.

저희가 성장하고 결혼을 하여 하나씩, 둘씩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될 때에도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격려하시고 먼발치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같은, 그래서 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 여 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수년 간 남동생과 사시다가 지금은 제가 모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시고 몇 번 교회를 가셨지만 목사들의 설교가 빈 말이라며 싫어하셨는데 최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당신이 진즉에 최 목사님을 만났다면 벌써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며 감사해하십니다.

연세가 팔십대 중반인데 우리 어머니는 컴퓨터로 인터넷도 하시고, 이메일도 하십니다. 건강도 아주 좋으셔서 집안일도 많이 챙겨주십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 김희정 권사(MP) |

■ 사회보장제도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웰페어 수혜에 대한 잘못된 상식

미국에 살면서 다들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누구나 바라는 모습 이겠지만 실제의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몇 편으로 나누어 미국에서 살면서 응급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시, 카운티, 주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보조나 의료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혜택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1) 많은 Welfare 혜택을 받으면 이를 이후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Welfare 사무실에 와서 첫번째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조건도 또 규정도 없

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받는 혜택을 성년이 되면 다 되갚아야 한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며 실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 Welfare를 받기 시작하면 그 기록이 이민국이나 IRS에 자동적으로 보고된다.

이 또한 근거없는 말들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민국에 조회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Welfare사무실에서 신청자에게 이를 이민국에 통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Welfare를 받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고 추방까지 가능하다.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까다로워 질수



노재덕 집사

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에 경우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SI를 제외한 미국에서 실행되는 모든 Welfare 프로그램은 단기 혜택이며 정부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많은 구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많은 수혜자들은 이 Welfare에 의존하며 장기간 생활하는 이들을 접하지만 이는 Welfare system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모습이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혜택을 받을 상황에 접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여서 현재의 어려움에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정부가 제공하는 Welfare의 여러가지 program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안에” 2018년 5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산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박희정, 이광영, 이애스더, 임용자, 조성은, 조용대(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